

#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(안)

2018. 1. 17.

금 융 위 원 회

## I

### 혁신위 권고안 관련 경과

-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 '17.8.29일 1차회의를 개최하였으며, 12.9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  
→ 12.20일 혁신 권고안 발표(4개 분야, 25개 과제, 73개 세부과제)
-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세부과제별(73개)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한편, 이행계획을 수립

## II

### 권고안 이행계획[요약]

- ◇ 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, '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'을 차질없이 추진
- ◇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, 관계부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 마련

- ① (금융행정 투명성·책임성 제고)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, 검사·제재 행정 개선, 행정지도 축소 등을 추진
  - '금융위 운영규칙'을 개정하여 금융위 의사록 상세 공개(가시행)
  - 국내·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내·외부 의견, 금감원 협의를 거쳐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'금융위 직원 행동강령' 마련('18.1분기)
  - 금융회사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'자료요구 실무지침'을 마련하고, 자료 이력검색 효율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('18.上)
  -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,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'금융규제 운영규정' 개정('18.下)

② (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) 인가절차 개선, 영업  
규제 네거티브화 추진

- 인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 
포함한 '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' 마련('18.1분기)
-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인가, 개별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 
하는 '금융혁신지원 특별법' 제정 추진('18.上, 국회 제출)

③ (금융권 인사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방안) 금융감독원 채용  
시스템 개선, 금융권 감사 독립성·전문성 확보

- 금감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의 50%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,  
부정행위시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됨을 명시('18.上)
-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  
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제도 개선('18.1월, 관계부처 합동)
- 감사조직 독립성 확대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업무의 전문성·  
독립성 확보를 위해 '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' 개정안 마련('18.上)

④ (금융권 영업관행 개선)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, 취약차주  
보호강화 등도 추진

- 그간의 성과·한계 등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체계 개편방안 마련('18.下)
-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,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 
도입 등을 포함한 '금융소비자보호법' 제정 추진(지속)
- 원금 연체시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 마련('18.1월)
- 비은행 이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용등급평가 차별이 나타나지  
않도록 하는 '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' 마련('18.1월)

■ 혁신위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안을 검토·마련

○ 특히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

< 혁신위 권고내용中 >

- ① (차명계좌)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
- ② (은산분리) 국회,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득·실을 심도있게 검토
- ③ (근로자추천이사제) 이해관계자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
- ④ (키코)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시 상황 파악·필요한 조치, 재발방지책 마련